

##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외식행동의 차이

유 정 림\*(동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교육과 석사)

박 동 연 (동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교육과 교수)

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가족의 외식행동을 조사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. 경주와 서울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440가구를 대상으로 외식의 빈도, 주 이용 메뉴, 제안·정보탐색·음식점 결정·메뉴 결정의 단계별 의사결정자, 외식에 대한 태도 등을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. 조사내용을 4단계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기술통계,  $\chi^2$ , t-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

그 결과 외식의 빈도에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( $p < 0.01$ )를 보인 방식은 전화배달 방식과 객석을 이용하는 방식이었다. 전화배달과 객석을 이용하는 방식의 경우 모두 2주기 가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. 외식 시 가장 선호하는 음식을 보면 전 가족주기에서 Take-out 방식에서는 '치킨'이, 전화배달 방식에서는 '자장면', '치킨', '피자'가, 인터넷배달 방식에서는 '피자'가, 객석이용 방식에서는 '생선회'와 '소고기'가, 간이식당에서는 '떡볶이', '라면', '김밥'이었다. 가족외식의 경우 의사결정자는 Take-out 경우는 제안, 탐색, 외식업소 결정의 과정에서는 전 가족생활주기에서 '부인'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, 메뉴 결정의 과정에서는 1, 4주기는 '각자'가, 2주기는 '부인'이, 3주기는 '자녀'가 주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( $p < 0.001$ ). 전화 배달 경우는 제안, 탐색, 외식업소 결정의 과정에서 1, 2주기 가족은 '부인'이 3, 4주기 가족은 '자녀'가 주로 결정권을 가졌고, 메뉴결정 과정에서는 3주기 가족의 '자녀'를 제외하고는 모두 각자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( $p < 0.001$ ). 객석이용의 경우 제안·탐색의 과정은 '남편', 외식업소 결정은 1주기는 '부인'이, 4주기는 '가족공동'으로, 2·3주기 가족은 '남편'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고, 메뉴의 결정은 '각자'하는 것으로 나타났다( $p < 0.001$ ). 간이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안·탐색·외식업소 결정과정에서 2주기 가족은 '부인'이, 3·4주기 가족은 '자녀'가 주로 결정하였고, 메뉴는 3주기 가족의 '자녀'를 제외하고는 '각자'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( $p < 0.001$ ). 외식에 대한 태도는 가족주기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. 그러나 전체 가족의 외식에 대한 태도 점수(3.45)가 평균값보다 높아 외식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상의 결과로 보면, 외식 시 선호되는 메뉴의 대부분이 영양적으로 불균형적이기 쉬운 것들이었고, 의사결정자는 객석이용의 경우 남편의 영향력인 컷던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인과 자녀의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. 그러므로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외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외식업소에서는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고, 또한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인과 초등학생 이상 자녀에게는 외식에 대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.